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2009

Shin, Soo-Kyung (PSCORE)

1. Torture and inhuman trea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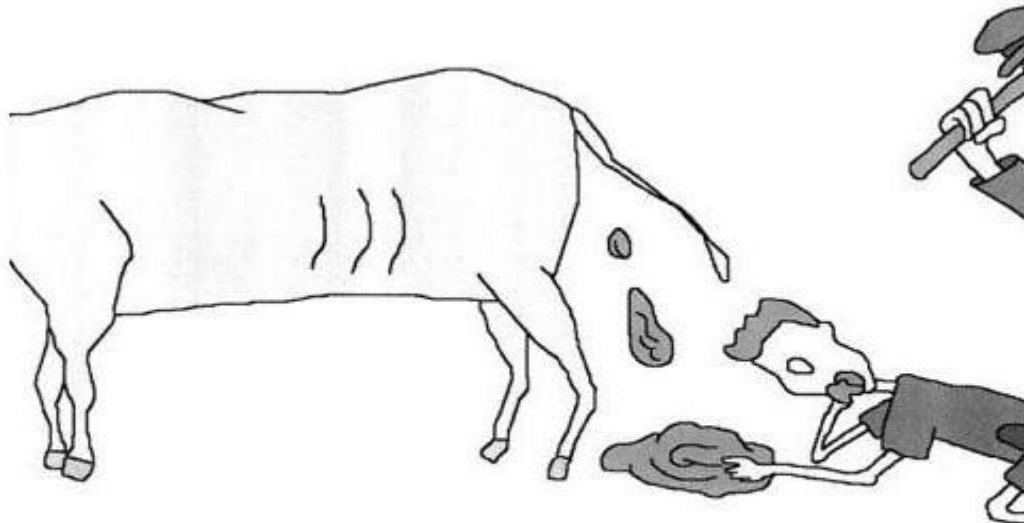


▲ 물구나무 세운 채 발길질 소의 똥에 섞인 낱알을 주워 먹었던 북한 주민을 채찍질하려던 간수가 그를 물구나무 세운 후 배를 발로 차서 토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주민통제를 강화해 왔다.

그녀는 동시통역사 옆에서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나를 맞이한 사람은 중국 브로커들이었다" "중국 돈 4000원에 어린 자식들과 헤어져 팔려 가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 분한 것은 중국인 브로커들이 인신매매하는 북한 여자들을 '돼지'라고 부르며 짐승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잔인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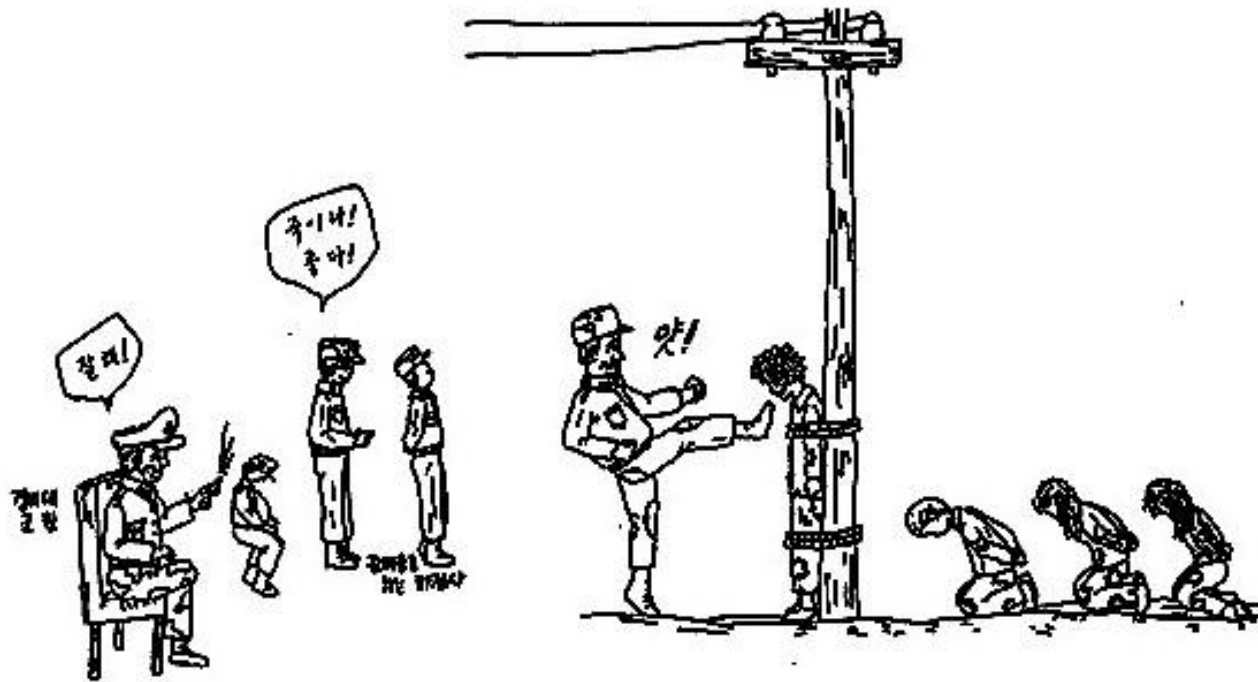
어떻게 사람을 돼지라고 부르며 인간이 인간을 팔 수 있습니까." 그녀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아도 이 슬픔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이 더 원통했다"고 말했다.

2. Food condition in detention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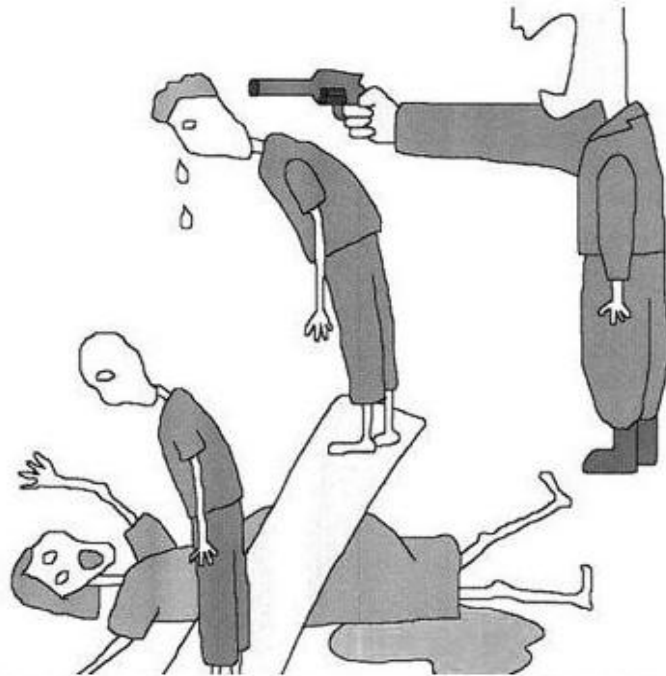


▲ 소똥 속 낱알 주워 먹는 수감자 수용소에 수감 중인 북한 주민이 너무 굶주린 나머지 소의 똥에 옥수수·쌀·보리 등의 낱알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입에 집어넣고 있다. 간수가 그에게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장면이 오른쪽에 보인다.

3. Violation of 'right to life'



4. Women's human rights abuse



▲ 임신부 유산시키기 임신부 배 위에 놓인 널빤지로 두 명의 남자가 올라가서 강제로 유산시키는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임신부는 끔찍한 고문에 두 팔을 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간수가 총으로 협박하자 어쩔 수 없이 임신부의 배 위에 올라간 남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Thank you